

## 8/23(월) 데살로니가전서 묵상(3)

### 데살로니가전서 2: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간 복음의 적대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바울의 적대자들은 소위 거짓 사도들과 유대주의자들로서 이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이면에는 악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데살로니가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고린도 지역에서 합류한 동역자 디모데로부터 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바울의 변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헛되지 않은’이라는 말은 ‘바울의 선교팀이 행한 사역의 열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과 열매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곳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했습니다(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이같은 표현은 그가 복음의 적대자들의 공격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 전파의 이면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이왕이면 힘든 지역에서의 사역은 피했을 것이고 또 가는 곳마다 목숨을 다해 사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밤낮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합니다(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한편, 복음의 적대자들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공격했던 악의적인 공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당시 종교적 험잡꾼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았고, 또 보수(돈)나 바라는 사람이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3-6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의 주장은 그가 전한 복음이 종교적 험잡꾼들과 같이 쓸데 없는 인간적 거짓 교리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아침하거나 탐심의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고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성령에 의해 이끌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약 삼 년 간의 소위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갈 1:17-18,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의 이러한 훈련은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없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갈 2:8-9,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 복음의 우선성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 이유는 올바른 복음 전파와 사도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듣는 어린 자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나타내는 대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순하고 쉽게 그리고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특별한 애정과 돌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성을 다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짓없고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러한 사랑은 누가 증명해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의 사랑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9-11절).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하고 나타냈던 것입니다(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거짓 사도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말도 안되는 오해와 비방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당했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공격처럼 거짓 사도들과 유대인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는 대신 먼저 살아가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적대자들처럼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또는 교회 안의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악의적인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헌신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또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적대자들의 공격처럼 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가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온갖 박해를 당해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의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 가운데 행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기쁨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 의료진들을 위한 기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계 각국에서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 종사자의 사망자 수가 누적 115,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특별히 의료진의 손실과 부족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의료진의 양과 질의 격차가 줄어들고, 각국이 필요한 의료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을 위해 중보하자. 오늘은 브랜포드 1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캄보디아 김기대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자.